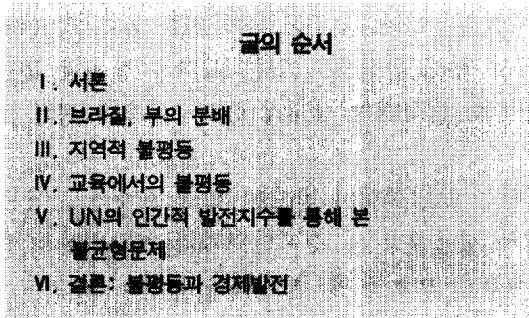


브라질 경제의 한 특성: 사회, 경제적 불평등

윤택동 (한국외대)



글의 순서

- I. 서론
- II. 브라질, 부의 분배
- III. 지역적 불평등
- IV. 교육에서의 불평등
- V. UN의 인간적 발전지수를 통해 본 불균형문제
- VI. 결론: 불평등과 경제발전

I. 서론

IMF 이후, 한국에서는 사회적 불평등문제, 특히 부의 분배와 관련하여 불평등문제가 소수의 몇몇 그룹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사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한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증대는 경제와 관련하여 파생적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브라질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브라질 사회의 심한 빈부격차는 다수의 빈민층을 형성하도록 만들었고, 이들 소외된 계층은 결국 사회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담당하

는 치안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으며, 각 개인, 특히 상류층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안전관련 지출을 하게 되었고, 기업들 또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로, 생산관련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 증대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브라질경제의 효율성 저하와 대외경쟁력에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문제, 특히 부의 분배의 심한 불균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브라질의 경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브라질과 비교할 때, 부의 분배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문제는 절대적 크기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사회가 느끼는 구성원사이의 상대적 차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브라질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교훈삼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국내의 상대적 불평등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브라질에서 발생된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 불평등문제와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과의 연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브라질은 1950년대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특히 1968-1973년 사이에는 연평균 11%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브라질의 기적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이런 고성장의 기간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사이에 브라질 경제는 세계의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했던, 장기간의 고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브라질 경제는 1950-90년대 사이에 높은 경제성장과 심한 경제침체라는 극단적인 양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50-90년대의 이같은 경제 성장과 침체기간 중에, 브라질의 부의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1950-70년대사이 상당한 성장을 기록하였던 시기에도 부의 분배는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어왔다. 즉 성장과 분배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같은 현상은 1970년대 초, 세계 경제학계에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1960년대까지 경제발전론에서는 성장을 통한 빈곤의 해결을 시도해왔

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성장만으로는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는 경제발전론 상에서 중요한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제발전론은 이 시기부터 성장론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실업, 고용, 불평등, 경제제도, 민주화(탈집중화)와 참여, 여성문제, 경제윤리, 지속적 성장과 환경, 인간적발전 등으로 확대 발전되어왔다 (Ardnt, 1987; Ingham, 1993; Naqvi, 1996; Todaro, 1985; Yoon, 1999). 이와는 달리, 성장론은 Harrod-Domar 모델과 Solow 모델위주로 지속되어오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하면서, 성장론의 영역을 자본과 노동이라는 주된 경제적 지표에서 인적자원이라는 영역으로 다소나마 확대하게 되었다 (Romer, 1986, 1990; Lucas, 1989; Solow, 1994). 결국 경제발전론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를 가능케 하는 양적인 성장 뿐만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 또한 중요하다는, 즉 량과 질이 모두 고려된 종합적인 면에서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1970년대까지의 브라질 경우는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으나 경제발전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상대적인 격차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1970-80년대 지속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지속, 심화하게 만들었고, 이런 장기적 사회적 갈등은 마침내 사회적 불안으로 전환되어, 현재 통제가 어려운 정도의 수많은 범죄와 교도소 내에서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불안요인을 생산해냈다. 결국 현재의 치안불안은 장기적 사회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브라질의 사회적 불평등을 하나의 논문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제약조건을 설정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1960-90년대 초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1960년대 이전의 부의 분배의 형성과정이나 상황, 또 1990년대에 발생한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는다. 둘째, 분석대상기간 내에서도, 불균형의 전체적인 윤곽과 그 표면적 변화를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심층적인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다른 논

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제 이같은 브라질 사회적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천 되었는지를 다음절들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회적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임을 확인한다.

II. 브라질, 부의 분배

브라질에서 빈곤은 일반적 현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였다. Veloso (1991)의 절대빈곤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1970년 브라질 총가구의 44%가 절대빈곤층에 속했다고 한다.¹ 이는 브라질에서 절대빈곤이 얼마나 심했던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² 하지만 이같은 절대빈곤은 197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에 이미 총가구의 18%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빈곤보다도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브라질에서 발생된 상대적 부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다.

표 1. 지니지수: 브라질과 한국

	1960	1965	1970	1980	1985	1988	1990
브라질	0,50	-	0,56	0,59	-	-	0,63
한 국	-	0,34	0,33	0,39	0,34	0,33	-

자료: Yoon, 1999, p.162. Barros e Mendonça, 1993, p.544,

표 1의 지니지수를 보면 브라질의 경우, 1960년에 이미 0.50으로 상당히 높아 부의 분배가 매우 나쁜 상태였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970년에 0.56, 1980년에 0.59, 그리고 1990년에는 0.63으로 계속

¹ 여기서 절대빈곤의 기준은 브라질 최저임금으로, 가계소득이 최저임금 하나 이하를 받는 층을 절대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2001년 4월 현재의 브라질 최저임금은 R\$ 180 (US\$6,34)이다.

² Todaro의 그의 책 도입부에서 사실 (현실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통해 사회적 차별과 갈등의 심각성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Todaro, 1987, pp. 13-14).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표 2 에서 보듯, 1964 년 이후 1980 년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런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는 악화되었으며, 이같은 결과는 종전의 경제발전모델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었다 (Fishlow, 1972). 다시 말해, 이때까지 경제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경제발전모델은 경제의 양적 성장이 개도국의 빈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경제의 양적성장 측정도구로서 GNP 를 활용하였었다. 따라서 당시 GNP 의 증대는 경제성장이자 경제발전으로 받아들여 왔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발생된 현상, 즉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은, 당시까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용되어왔던 일반적인 신고전적 경제발전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70 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인플레이가 끊임없이 높아졌던 80 년대에도 1.3%라는 낮은 성장률과 함께 부의 분배는 계속 악화되었다.

표 2. 브라질 년평균 경제성장률 (%)

	1964-67	1968-73	1974-80	1981-92
년평균 경제성장률	4,2	11,2	7,1	1,3

자료: Conjuntura Econômica, out. 1997, p.XVIII

브라질에서 부의 분배의 악화는 또 다른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 국가의 모든 사람을 그의 富의 따라 10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10%의 평균소득과 최하위 10%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10 분위지수를 보면 다시 한번 부의 분배의 악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에서 보듯이 1960 년 이후 10 분위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최상위층 10%와 최하위 10%의 소득사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80 년대에 10 분위지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다. 1960 년에서 1980 년 사이에 10 분위지수는 34 배에서 47 배로 계속 악화되어왔다. 그러나 1980-90 년 사이에 47 배에서 78 배로 아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최상위 10%와 최

하위 10% 사이의 소득격차가 아주 심해졌음을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 브라질에서 부의 분배의 불균형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80년대 브라질 경제를 지배하였던 고인플레이션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3. 브라질 부의분배: 10분위지수 (최상위 10% / 최하위 10%)

	1960	1970	1980	1990
10분위지수	34	40	47	78

자료: Barros e Mendonça, 1993, p.544.

1980년 100%을 넘었던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1983년 200%, 1987년 400%, 1989년 1700%을 넘어서 (Baer, 1996), 1994년 6월에는 연간(12개월 누적) 인플레이션이 5000%에 달할 정도로 계속 높아져왔다. 15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 특히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더욱 낮춘 반면에, 고소득층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해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함으로써 소득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잔혹한 세금이라는 점을 브라질의 80년대 부의 분배의 경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지니지수와 10분위지수의 설명력의 차이점이다. 지니지수의 경우에는 로렌츠곡선에서 나타나는 면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간층의 크기변화에 민감할 수 있는 반면에, 10분위지수는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여, 최하위층의 변화를 곧바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브라질에서 지니지수의 경우에는 60년대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10분위지수는 80년대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60년대에는 중간층의 상대적 약화가 발생된 반면, 80년대에는 하위소득층이 더욱 희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플레이가 하층민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결국 브라질의 부의 분배 악화는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간

이전, 즉 60년대 이전에 형성된 브라질의 사회, 역사적인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같이 주어진 불평등한 사회구조 하에서, 브라질에서 부의 분배는 60년대 이후 개선보다는 악화의 길을 걸어왔음을 표 1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좀더 설명하면, 첫째, 식민지시대 때 브라질에 형성되었던 사회, 정치, 경제체제가 독립 후,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1930년대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즉, 과거의 유산이 현재 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식민지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부가 소수의 농장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이란 유산이 1822년 독립 후 1930년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193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브라질이 채택한 산업화 모델이 과거 유산을 크게 바꿀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Velloso, 1991, p.6). 따라서 1930년대,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추진되었고, 이는 불평등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악화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³

한국의 지니지수는, 1990년까지, 브라질과 비교할 때 아주 양호한 편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악화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부의 분배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80년대에 발생되었던 한국사회 내에서의 갈등, 특히 노사분규는 분배의 갈등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 분배는 브라질에서처럼 아주 높은 절대적인 수치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는 낮을지라도 국내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격차 또한 중요함을 양국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브라질의 경우에는 60년대 이후 성장을 통해 절대적인 빈곤의 해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절대

³ 브라질의 불평등의 원인과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확대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불평등, 제도, 그리고 경제발전

적으로 심한 불평등의 장기적 지속은 사회적인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2 차 세계대전, 6.25 전쟁 등을 통해 기득층이 상당히 파괴된 데다, 사회전체가 빈곤상태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 계층간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는 富 자체의 규모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시작되던 당시에 지니지수로 나타나는 부의 분배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으나,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함께 획득한 결실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분배상 절대 금액면에서는 확대가 되었을 지라도, 고용의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형평하게 분배됨으로써, 지니지수 자체의 악화는 심화되지도, 또 악화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Ⅲ. 지역적 불평등

위에서는 국가전체로서 부의 분배가 심한 불균형 상태이고 그것이 심화되어왔다고 보았지만, 브라질의 부의 분배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적 불균형이다.

표 4 에서 보듯이, 1990 년 당시, 북부와 북동부의 경우에는 여타 지역과는 달리 각 지역인구에서 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지역적으로 아마존 지역을 포함하는 북부지역은 인구가 적으므로 빈곤인구수 자체가 적고, 또 전국빈곤인구 비율에서도 5.3%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인구대비는 43.2%로 아주 높은 편이다. 그리고 북동부 지역은 5 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빈곤인구수가 많고, 따라서 브라질 전 지역 빈곤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5.1%을 차지한다. 더욱이 북동부 인구대비 빈곤인구 비율은 45.8%로 5 개 지역 중 가장 높다.

표 4. 브라질 1990년 지역별 빈곤 현황

	빈곤인수(천명)	지역빈곤인구 / 지역인구 (%)	지역빈곤인구 / 전국빈곤인구 (%)
북부	2,220	43.2	5.3
북동부	18,894	45.8	45.1
남동부	13,988	23.0	33.4
남부	4,349	20.1	10.4
중서부	2,469	24.8	5.9
브라질	41,919	30.2	100.0

자료: PNUD, 1996, p.23 e 184

이에 반해 여타지역은 25%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남부, 남동부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 비해 지역내 빈곤비율이 약 2 배나 높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역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반면, 여타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해, 심한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역적 불균형은 해당지역내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간 인구의 이동을 불러일으켜 북부와 북동부지역에서 여타지역으로 이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들이 유입된 지역에서는 빈곤인구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제적 중심지인 쌍빠울루 (Sao Paulo)市와 히우 지 자네이루 (Rio de Janeiro) 市로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동부 지역에 속하는 쌍빠울루州의 경우에는 주의 수도인 쌍빠울루市 지역의 빈곤인구률은 22%이나, 그 외 여타지역은 12%에 불과하고 있다. 이같은 쌍빠울루州 내부격차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북동부지역에서 유입된 빈곤인구들 때문이다. 쌍빠울루市와 히우 지 자네이루市에는 이들 빈곤층이 모여 사는 대규모 빈곤지역이 존재하며, 여기가 온갖 범죄의 온상역할을 하고 있다.

표 5. 브라질 1991년 지역별 일인당 소득. (단위: PPC\$)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	브라질
일인당소득	3,747	2,559	5,440	7,212	5,388	5,240

자료: PNUD, 1996, p.169.

그리고 또 표 5 을 통해서, 일인당 소득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남동부지역의 경우 PPC\$7212 인데 반해, 북동부지역의 경우에는 그의 약 1/3 에 불과한 PPC\$2559 을 기록하고 있다. 또 남동부, 남부 그리고 중서부지역은 PPC\$5000 을 모두 넘어서고 있는 반면에 북부와 북동부는 PPC\$400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지역적 차이는 브라질 내부에서 성장을 위해 일치된 힘을 창출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70 년대에는 두개의 브라질이라는 말도 나왔었으며, 지역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었다.

IV. 교육에서의 불평등

위에서는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불균형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이 최근의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즉 역사적,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표 6 과 7 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표 6. 교육수준별의 변천. (%)

	1960	1970	1980	1990
문맹	46	43	33	22
초등학교 (1 단계: 4년)	41	40	40	38
초등학교 (2 단계: 4년)	10	12	14	19
중등학교 (3년)	2	4	7	13
대학교	1	2	5	8

자료 : PNUD, 1996, p.36

표 6 에서는 1960-90 년 사이에 각 교육수준별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60 년에는 문맹률이 46%, 그리고 문맹을 겨우 벗어난 1 단계 초등학교수준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수준을 합하면, 87%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일반 다수는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같은 교육기회의 박탈은 신분 상승의 不可라는 사회적 경직성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회적 경직성은 역사적인 산물이다. 다시 말해 브라질이 1500 년 발견된 이후, 식민지시대, 왕정, 그리고 공화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되어온 정치체제에서 나온 사회적인 산물이다. 1970 년, 두 수준의 합은 83%로 10 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1980 년에는 73%, 1990 년에는 61%로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1960-70 년 사이에 4% 감소, 1970-80 년 사이에 10%, 그리고 1980-90 년 사이에는 12%가 감소하고 있다. 이 결과는 1970 년 이후 브라질 교육에서 가속화된 변화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1970 년까지만 해도 교육에서의 변화는 거의 미미하여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던 반면, 1970 년 이후 브라질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60-70 년대까지 브라질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직적이었으며, 이는 브라질 사회가 쌓아왔던 정치, 사회체제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브라질 기득층들, 기존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국민들을 우민화정책 속에 오랜 세월 가둬 두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교육에서의 변화는 90 년대에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을 나타내 준 표 6 과는 달리, 표 7 은 지역별 교육수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부의 분배에서도 가장 많은 빈곤인구를 가졌던, 그리고 가장 높은 빈곤인구 비중을 보여주었던 북동부지방의 경우 교육수준에서 타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960 년 북동부지역의 평균교육 년수가 1.1 년인 반면, 남동부지역은 2.7 년으로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 1990 년 북동부지역은 3.3 년으로 30 년전과 비교해 2.2 년이 증가한 반면, 남동부 지역은 3 년이 증가하여 5.7 년에 도달하였다. 결국 이들 두 지역간의 격차는 해소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브라질 전체의 평균교육수준 개선도 상당히 느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평균교육 연수

	1960	1970	1980	1990
북부/중서부지역	2,7	0,9	4,0	-
북 동 부 지 역	1,1	1,3	2,2	3,3
남 동 부 지 역	2,7	3,2	4,4	5,7
남 부 지 역	2,4	2,7	3,9	5,1

자료: PNUD, 1996, p.37

다시 말해 1990년 평균교육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⁴, 국내적으로도 또한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내생적성장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적자본형성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학교교육이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따라서 낮은 교육수준은 브라질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 또는 성장에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 이같이 낮고 차별적인 교육상황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지배구조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⁵

V. UN의 인간적 발전지수를 통해 본 불균형문제

위에서 논의한 불균형문제를 좀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⁴ 1970년 한국의 평균교육 연수는 8년에 도달하였음.

⁵ UN 산하의 UNDP (포르투갈어로는 PNUD) 와 브라질 정부경제연구소인 IPEA 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력의 질과 직업에서의 차이가 이같은 불평등을 창출하는 중요한 결정변수라고 지적하였다 (PNUD, 1996, pp26-27). 다시 말해 노동력의 질이란 교육에서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 차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직종의 차이는 임금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즉 교육에서의 차이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중요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있는 자료가 있다. 브라질 경제기획부 산하연구소인 IPEA 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과 공동으로 ‘브라질의 인간적 발전에 관한 보고서 (Relatorio sobre Desenvolvimento Humano no Brasil)’를 1996 년에 발간하였다. 거기에 나타난 브라질의 인간적 발전지수 (Human Development Indicator - HDI)는 0.797 로 전세계적으로 中上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적 발전지수 (HDI)란 P. Streeten 에 의해 주창되어, 유엔이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서, 기본적으로 3 가지 구성요소, 인간의 평균수명,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문맹률, 그리고 구매력을 나타내는 일인당 소득수준을 종합하여 지수를 계산하고 있다. P. Streeten(1994, p.235)에 의하면, 특정한 지수가 어떤 한 부분만을 보여주면서 치우친 정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이 지수는 이들 세가지 구성요소를 종합함으로써 좀더 균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고, 또 HDI 를 구성하고 있는 3 개의 구성요소들 하나 하나도 여타 지수들에 비해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 종합된 지수가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완전한 지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HDI 가 좀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그리고 좀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발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표 8. 1991 년, 브라질 지역별 인간적 발전지수 (HDI)

	HDI
브 라 질	0.797
북 부 지역	0.706
북 동 부 지역	0.548
중 서 부 지역	0.826
남 동 부 지역	0.838
남 부 지역	0.844

자료: PNUD, pp.13, 14 & 169

브라질의 HDI 수준은 개도국들 중에는 높은 편으로서 많은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긴급한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브라질 국가전체로서의 HDI 수준이 기준치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표 8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동부지역은 HDI가 0.548로서 브라질 전체 0.79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또 중서부, 남동부 그리고 남부지역과 비교할 때는 더욱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0.706으로 북동부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가전체지수에 비해 약 0.1 그리고 남부지역에 비해서는 약 0.14나 낮은 수준이다. 결국 인간적 발전지수(HDI)에서도 지역간의 격차 내지 불균형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준의 차이가 아주 심함을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지역별 차이는 국가전체적 지수로서의 HDI의 활용에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전체지수가 단순한 평균치이므로 최하층과 최상층사이의 차이가 클 경우에, 평균치인 국가전체지수도 이들 최상층 및 최하층과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전체 HDI인 0.797은 0.548인 북동부의 상황을 전혀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브라질의 일인당소득수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5에서 보듯이 브라질 전체로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91년 당시, PPC\$5,240였으나, 북동부지역의 경우에는 PPC\$2,599, 그리고 남동부지역은 PPC\$7,212였다. 이 결과를 비교할 때, 브라질 일인당 평균국민소득에 비해 북동부지역은 반에 불과한 반면, 남동부지역은 브라질 평균국민소득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브라질 평균소득은, 북동부지역의 소득수준을 대표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결국 평균치로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브라질의 경우에, 국민들의 평균적 소득을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의미를 갖기가 어려우며, 또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브라질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편, 또는 낮은 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좀더 자세히 지역별 HDI를 분석해 보면, 북동부지역의 0.548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들 HDI와 비슷한 수치로 모로코, 스와질랜드와 같은 수준이며, 특히 북동부지방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Paraiba 주는 0.466으로 레소토나 카메룬보다도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높은 지역인 브라질 최남부의 Rio Grande do Sul 州는 0.871 로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 결국 전세계 발전국과 빈곤국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불균형이 브라질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에서는 불균형이 지역적인 수치로 나타났지만, 이를 브라질 사회전체로 평가할 지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즉, 최상층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발전을 보인 국가들 수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에, 최하위층은 국제적으로 최빈곤국들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에서 살고 있다. 이같은 격심한 사회적 격차, 즉 불균형은 그대로 사회적 갈등요소로 표출될 수 밖에 없고, 하층민들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VI. 결론: 불평등과 경제발전

현재 브라질은, 앞에서 논의된 것들 외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앓고 있다. 국민보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높은 유아사망률, 어린이들 낮은 영양공급수준, 상당수의 길거리의 버려진 어린이들, 등), 또 치안 관련 안전문제 (심각한 강도, 살인, 납치, 교도소내 폭동 등), 상당한 수준의 부정부패 등. 90 년대에 들어와서 브라질은 이들 사회적 문제 개선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식민지시대부터 누적되어온 이같은 사회적, 구조적 문제점을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살펴본, 부의 분배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는 이같은 사회적 구조적 불균형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도와 관련되어 많이 분석되었듯이 (North, 1991; Olson, 1983; Yoon, 1999, p.29), 브라질에서도 식민지시대에 대토지 소유제를 통해 부의 불균형 상황이 형성되었고, 이는 지역별로 부유층들로 구성된 많은 이해집단을 형성, 누적하도록 허용하였다. 현재까지 브라질에서는 토지개혁 같은 부의 분배를 혁신적으로 실현시킬 그런 큰 충격은 없었다. 또 기존의 기득층을 깨뜨릴 수 있는 혁명이라든지, 전쟁 같은 것 또한 없었다. 따라서 식민지시대부터 누적되어온 이들 이해집단은 국가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중시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결국 이들 이해집단은 기존의 사회적, 구조적 부의 분배의 불균형을 그대로 유지시켜온 역할을 하였다. 이같은 사회에서 교육의 발전은 이들 이해집단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 국민들, 좀더 정확히 말해, 다수의 하층 빈곤민들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한 전체적 교육수준을 낮게 유지하게 된다. 이같은 이익집단의 존재와 이들에 의한 사회, 구조적 체제의 공고화는 소수의 이익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없이는 분배 또한 불가능하게 되며, 분배 없이는 소득의 증가, 이로 인한 소비의 증가, 그리고 최후의 목적인 인간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어렵게 된다. 즉 경제발전에서 추구하는 인간 삶의 질 개선에 필요조건인 경제성장이, 부의 분배가 불균형적이고, 교육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브라질의 사회, 경제적 불균형은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순수한 경제적 비용 외의 여러가지 생산관련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경우를 통해, 한 국가의 성장 더 나아가서 발전에는 순수한 경제적 요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한 사회체제의 과거, 경직성, 폐쇄성, 지나친 집단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유동성, 가변성, 도덕성, 경쟁의 필요성을 재 인식시켜주며, 좁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만이 아닌, 폭넓은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 ARNDT, H.W. *Economic Development: The History of an Id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oul, Bi-Bong Press, 1987
- BAER, Werner. *A Economia brasileira*. São Paulo, Nobel, 1996.
- BARRO, Ricardo Paes de; MENDONÇA, Rosane Silva Pinto de. Geração e Reprodução da Desigualdade de Renda no Brasil. In: *anais do XXI, Encontro Nacional de Economia, Belo Horizonte, ANPEC, v.2, 1993.*
- CONJUNTURA ECONÔMICA. Rio de Janeiro, FGV, 1997.
- FISHLOW, Albert. Brazilian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v.62, 1972.
- INGHAM, Barbara.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teractions Between 'New' and 'Old' Ideas. *World Development*, v.21, n.11, 1993.
- NAQVI, Syed N.H.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 Economics. *World Development*, v.24, n.6, 1996.
- NORTH, Douglas.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5, n.1, 1991.
- OLSON, Mancur.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arative Growth Rates. In: Mueller, Dennis C.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Yale Univ, 1983.
- PNUD. Relatório sobre o desenvolvimento econômico humano no Brasil. Rio de Janeiro, IPEA, 1996.
- SOLOW, R.M.. Perspectives on Growth Theo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8, n.1. p.45-54, 1994.
- STREETEN, Paul. Human Development : Means and Ends. *American Economic Riveiw*, v.84, n.2, 1994.
- TODARO, Michael P.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3ed, traduzido em coreano por Lee, Kun-Sik et al. Seoul : Bi-Bong Press. 1985.
- VELLOSO, João Paulo dos Reis (coord). *Crescimento com Redistribuição e Reformas: Reverter a opção pelos não pobres*. Rio de Janeiro, José Olímpio, 1991.
- Yoon, Taek Dong. *Desenvolvimento Economico Comparado: Coreia do Sul e Brasil*. Porto Alegre, UFRGS, 1999